

시론

사라져가는 공덕비, 보존방안은 없나



박준수 시인·경역학박사

지난해 6월 폐광된 전남 화산탄광 뒷산 비탈진 곳에는 박경환 선적비가 세워져 있다. 1966년 재향군인회(제대장병보도회)가 건립한 것으로 박경환은 6·25 전쟁 중 탄광을 수호하는데 앞장 선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에는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인물을 기리는 3·4기의 공덕비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일제강점기 또는 해방 전후에 세워진 것들이며, 장학사업과 구휼사업 등 오블리시스 노블리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먼저 가장 변화한 중앙로 비아동협 인근에는 한 평 남짓한 자리에 화강암으로 조성된 아담한 비각이 있다. 돌 담장으로 둘러쳐진 비각 안에는 참봉 박원삼의 공덕을 기리는 시혜불망비(공덕비)가 서 있다. 박원삼은 구한말 대지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호세(戶稅)를 대납해주고 지금의 비아동터와 피난민촌 땅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만 안내문이 없어 공덕비의 주인공에 대해 아는 주민은 거의 없다. 문이 굳게 잠긴 채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 자라 시야를 가리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비아동협을 지낸 손권주 공덕기념비가 장성에서 비아동으로 들어오는 도로 한 편에 세워져 있다. 비문이 희미해서 관독이 어려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묘년(1909년 추정)에 주민들이 세운 것으로 새겨져 있다. 이 비석 역시 잡초가 뒤덮인 채 쓸쓸한 모습으로 서 있다.

마지막으로 호반아파트 입구 공터에 세워진 김경렬(1891-1947) 공덕비가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에 걸쳐 20여 년간 비아동협을 지낸 인물로 지역발전에도 많은 공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재입 중 가뭄 해소소를 위해 저수지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수리시설 확충에 힘 썼다. 그리고 해방 후 비아동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금 조성을 조성하는 등 육영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김경렬 공덕비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땅 주인이 비석 이전을 요구하자 마땅히 세울 곳을 찾지 못한 후손들이 철거 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인물을 추앙하기 위해 세워진 공덕비가 도시개발과 도로 개설 등으로 훼손되고 망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광주 관내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공덕비가 산재해 있으나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공덕비는 옛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전해주는 금석문으로 그 시대의 증표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어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이들 공덕비가 문화재

가 아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연구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전남 화순군은 1980년 이전에 세워진 비석 등 금석문 전반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비문 탐본과 해설을 곁들인 자료집 '화순의 금석문 탐본자료집' (2019년)을 발간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방치된 오래된 고비(古碑)의 비문, 바위에 새겨진 글자 한 마디가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공덕비는 그 시대를 증거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비등록 문화재이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때 마침 광주시는 9월부터 미래 창조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멸실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포괄적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공덕비 등 금석문이나 말로 당대의 시대상과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미래 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공덕비 등 근·현대 시기에 세워진 금석문에 대해 전수조사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社說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세계와 소통하는 축제되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30주년을 맞는 만큼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문화수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대표 격으로 2년 마다 열리며 올해 개막일은 9월7일, 6개월을 앞뒀다.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세계 20대 비엔날레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MZ세대까지 함께 어울려 지는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광주정신'과 '예술'의 접점에서 출발해 아시아의 현대미술 축제로 성장했다. 먼저 4월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광주비엔날레를 알리며 북업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 주목된다.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이 병행전시 30개 중 하나로 선정돼 소장품인 백남준의 '고인돌'과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그리고 두 작품의 의미를 계승하고 확장하는 세 명의 역대 참여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명성의 니콜라 푸리오 예술감독을 선임, 한국 공연예술의 원형인 판소리를 매개로 본고장 남도에서 영화를 보듯 감상하는 전시를 펼친다. 프리오폰 기간 해외홍보 설명회가 시작되며, 광주비엔날레 예고편인 비디오 에세이 영상이 지구촌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시주제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포스터·시그니처 등으로 시각화한 EIP(Event Identity Program)도 최근 공개됐다. 입장권 사전 예매는 5월부터 이뤄진다.

지금까지 순조롭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1995년 1회는 '경계를 넘어(Beyond the Borders)'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후 인지도를 지속해 끌어올렸다. 광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국제적 입지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예산도 최대로 투입된다. 광주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89억원의 재정 지원은 물론 행정 지원에 여념이 없다.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로 전역이 미술 축제의 현장이 되는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세계와 소통하는 비엔날레를 준비해야 한다.

일조량 감소 농작물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돼야

일조량 감소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각별하게 관리하라는 당국의 당부에도 속수무책이다. 지구적으로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다. 잦은 비와 흐린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 농민들의 근심이 가득하다. 절로 한숨만 나온다. 전남도가 재해 피해로 인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전남의 평균 주산지인 나주 일조량은 10% 줄었다. 이에 따른 생산량은 28%, 특출 출하율은 71%나 격감했다. 일조량이 1% 감소한 경남 진주는 오히려 생산량이 90% 이상 급증했다. 극단의 격차에서 보듯 농작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기상청 2월 일조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미와 딸기 주산지인 강진의 일조시간이 10시간으로 10년 평균보다 무려 39% 감소했다. 또 나주, 담양의 경우 11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 35% 줄었다.

2월에만 비오는 날이 30년 평균 7.2일보다 2배 증가한 15일이었다고, 18일부터는 무려 8일 연속

비가 내렸다. 옮겨올 많은 강수량이 문제다. 절대적으로 햇빛이 부족하면서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다.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거나 곰팡이 등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년 농사를 망칠 격정으로 잠 못 이루는 농민의 고통을 헤아려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일조량 감소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눈 앞에 닥쳤다. 식량 위기를 알리는 신호로 엄청난 경제·사회적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통해 가속화를 막을 실질 정책까지 전방위로 강구해야 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차기 영농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지원 여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피해가 인정돼야 복구비 지원 및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명백한 기상이변이다. 부인할 수 없는 자연재해다. 정부 조사가 급하다.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즉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기고

'감동을 주는 정치' 보고싶다



조은정 여성비즈니스네트워크 이사장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자국'과 그에 따른 자각과 반성'이 아닐까 싶다. 그런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성숙'이고, 그 성숙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도 아니다. 주변을 보면 이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중에 더 배울 줄 모르고, 더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자기 자신 밖에 모르고, 더 계산적이고 등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왜 그럴까?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 앞서 말한 '자기 직면, 자기 통찰, 이를 통한 자기 성숙과 타인 이해, 사회적 책임 정신'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체제술로 둔갑된다. 성공 방정식으로 전수된다. 사회적 통념이 된다. '사회악'만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보신주의, 자기중심주의'도 넓게 보면 악화의 요인이다. 그들의 나이브한 체제술이 '체상살이 체제론'으로 회자되는 것, 필자는 이를 '시대의 퇴보'로 본다.

필자가 거주하는 광주도 그렇다. 평소,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려고 저러나 싶은 이들도 있다. 그냥 적당히 살다, 나이 먹고, 사회적 지위, 간판 있으니, 이제 정치나 한번 해볼까 싶어 나온듯한 사람들 말이다.

평소에 시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몸 사리느라 입도 뿔긋 안하다가, 때 되니 조끼 걸쳐 입고, 쓰레기 좀 줍는 시늉하고 다니더니, 막판에선 줄 서서 용쓰고, 찬한 적 사진 크게 걸어놓고, 마치 뒤늦은 투사라도 될 것 마냥 돌아다니는 모습에서 솔직히 전혀 진정성 일도 안느껴진다. 되고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게 필자의 뇌피셜이다.

"저런 사람을 왜 우리가 뽑아줘야 하지? 무슨 정치 효능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은 이들도 여럿 보인다.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안된다. "그 사람 이력 한 줄 물어봐, 무슨 시대적 효능감이 있냐?" 말이다.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다.

비단 광주 뿐이겠는가? 그런 인물들, 전국에 많을 거다. 이게 필자만의 아닌 다수 시민의 생각이라고 본다. 최근 각 정당에서 공천하는 거 보니 씩수가 노란 곳도 많다. 정치가 민의를 대변하기도, 정치수준이 시민수준을 못 따라온다.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치인으로 성숙한 사고와 철학, 소신, 태도, 삶의 역사인식, 현실을 제대로 보는 안목과 실천력, 그리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혈연, 학연, 지연 중심 사회다. 선거철만 되면 여러 이유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학교·고향 선후배, 지인의 지인, 집안 일가' 등.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서 그들이 광주와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는지, 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했는지,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을 정치를 했는지 물어보자, 그리고 '뽑히기 전과 뽑힌 후' 그들의 행보를 꼼꼼히 따져보자. 번지르르한 말, 화려한 배경, 마당발 인맥에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말자.

광주정치가 실종돼가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고 안타깝다. 임기 동안 아무런 존재감 없이 정녕 할말해야 할 때 입 다물고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세상 다 해줄 것처럼 소리치는 정치인들 말이다.

타 지역에선 광주를 정치선진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걸맞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왜 중앙에서 존재감이 없는지와 지역에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라도 정말 '감동을 주는 정치'를 보고싶다.

독자투고

위험한 마약유희... 청소년이 병든다



김광중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9명(0.8%)이었으나 2022년 9월에는 241명(2.6%)으로 짧은 기간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41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검거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해본다면 결코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빠르게 전파 시키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 마약'은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강력한 예방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순 투약·소지로 1년이상 징역부터 매매·알선, 수출·입 및 제조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만 14세-18세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 단계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대중매체 접근성은 높아지면서 미디어에서의 마약 노출 빈도가 높고, 이를 가법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이 쉬워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빠르게 전파 시키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 마약'은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강력한 예방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단순 투약·소지로 1년이상 징역부터 매매·알선, 수출·입 및 제조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만 14세-18세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 단계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대중매체 접근성은 높아지면서 미디어에서의 마약 노출 빈도가 높고, 이를 가법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이 쉬워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

그래픽 뉴스

사회·가족관계 회복과 자립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시범사업 추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이 사회·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서울과 대구, 경북, 전남 등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꿈드림센터로 개인 정보가 연계된 청소년 가운데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약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과 은둔 여부를 확인한다. 또 지난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일대일 전담 사례 관리사가 가정 방문해 상담한다.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이해 교육과 부모 상담, 자조모임 등도 운영한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다시 단절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월 60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월 35만원 이하), 법률지원비(연 350만원 이하) 등을 준다.

연합뉴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

3월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 1. 지원대상 파악**
꿈드림센터로 연계된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약 16,000명(2022년 기준)의 고립·은둔 여부 파악 지역·사회복지, 기존 민간지원체계와 연계해 파악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 신청 가능한 '은둔 청소년 1388' 내국인 포함 운영
- 2. 진단 및 1:1 상담**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활용해 지원 유형 구분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정기적 심층면담
- 3. 회복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소모임 운영, 탈고립 캠페인 경험 사례들과 멘토링 프로그램, 자유 요가 등 운영
- 4. 학습 지원**
개인별 역량 진단 후 단계별 교육 지원,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활용형 온라인 교육 등
- 5. 자립 지원·사후 관리**
사후 재진단, 지원 이후 변화 확인·점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연계해 생활비, 치료비 등 지원

사회적 고립·은둔 청소년(13-18세) 비율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21	4.6%
2023년	5.2%

13-18세 청소년 인구(약 270만명)에 차지하는 비율이 14.1%로 추정

연합뉴스 | 자료: 여성가족부, 통계청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내선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